광주지역 중·고생 207명

초등 3년 수준도 안된다

읽기·쓰기·셈하기 못해 지난해 집중 지도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학교 1~3학년 7만531명, 고등학교 1~2학년 4만586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한 결과 중학생 178명, 고등학생 29명 등 모두 207명이 '기초학습 부진아'로 분류됐다. 초등학생(4~6년)의 경우 6만9천893명 중 248명이 기초학습 부진아로 조사됐다.

뾰족하다·동그랗다·납작하다 등의 낱말과 제시된 그림을 선으로 잇는 문제부터 글과 그림을 주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맞추는 문제 등이 출제된 '읽기'의 경우 초등학생 130명, 중학생 110명, 고등학생 16명이 평균점(60점)을 넘지 못해 기초학습 부진아로 분류됐다.

낱말 받아쓰기부터 '개미야, 힘들지 않니( ), 너도 쉬렴'의 괄호 안 문장 부호 고르기, 제시한 글의 문장 중간에 들어갈 낱말 쓰기 등이 출제된 '쓰기'에서는 초등학생 135명, 중학생 98명, 고등학생 19명이 평균점에 미치지 못했다.

세자릿수 덧셈부터 두자릿수 곱셈, 그림 보고 정사각형 찾기, 시계보고 시각 맞히기 등이 문제로 나온 '셈하기'의 경우 초등학생 204명, 중학생 111명, 고등학생 24명이 기초학습 부진아로 분류돼, 영역별 중복자를 합치면 중·고교생 학습 부진아 수는 207명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학기 및 방학 중 집중지도를 벌였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현재 초등학생은 읽기 285명, 쓰기 291명, 셈하기 440명이 기초학습 부진아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읽기 233명, 쓰기 267명, 셈하기 368명, 고등학생은 읽기 79명, 쓰기 96명, 셈하기 127명 등 중·고등학생 200~300명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생 73% "방과후 학교 만족"

전남도교육청 조사

전남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방과후 학교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학부모와 학생 각 400명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생의 경우 7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7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856개교 중 2개교를 제외한 854개교, 참여 학생은 전체 29만1천여 명 중 56.3%인 16만4천여 명이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학교의 93.1%인 797개교가 실시해 가장 많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의 28.6%인 245개교가 실시했다. 일반 교과프로그램은 중·고교 400개교 중 69.3%인 277개교가 참여했다.

월 평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2.3개 등 평균 1.7개였다.

프로그램 1개당 월 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1만5천488원 ▲중학교 1만469원 ▲고등학교 1만6천661원 등 평균 1만4천206원이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학부모 만족도는 전국 평균(46.2%)보다 훨씬 높았다"며 "사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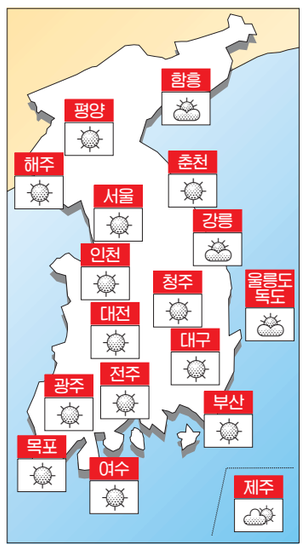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1월 24일 (음 12월 6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구름조금	0~9℃
목 포	구름조금	1~8℃
여 수	구름조금	3~9℃
완 도	구름조금	0~9℃
구 례	구름조금	-4~9℃
해 남	구름조금	-4~9℃
장 흥	구름조금	-4~10℃
고 흥	구름조금	-2~10℃
순 천	구름조금	-4~9℃
영 광	구름조금	-2~8℃
진 도	구름조금	-2~8℃
전 주	구름조금	-1~9℃
남 원	구름조금	-4~9℃
정 읍	구름조금	-2~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2.0m

목 포 밀물 〈 05:40 18:02 썰물 〈 10:52 23:20
여 수 밀물 〈 00:20 12:40 썰물 〈 06:17 18:50

▲해뜸 07:37 ▲해짐 17:52 ▲달뜸 10:35 ▲달짐 23: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날 씨						
최저/최고	-2/8	-2/2	-3/1	-4/2	-4/3	-3/4

아동·청소년 트랜스지방 섭취

성인보다 2~3배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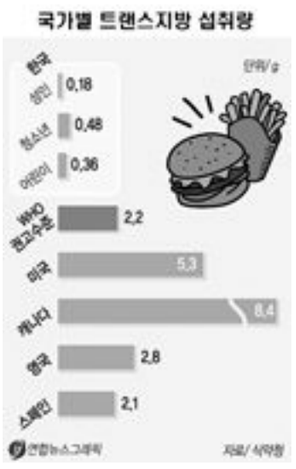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트랜스지방을 2~3배 정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길거리 등에서 파는 즉석 제조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의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립암센터와 충남대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인의 트랜스지방 섭취량 조사결과'와 '충청지역 내 즉석 가공식품류의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식약청이 23일 이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어린이(5~12살) 916명, 청소년(13~19살) 1천288명, 성인(20~77살) 781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의 하루 평균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성인은 0.18g인데 반해 청소년은 0.48g, 어린이는 0.36g으로, 성인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트랜스지방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대가 충청지역의 길거리와 휴게실, 제과점, 그리고 극장 등에서 파는 즉석조리식품들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트랜스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량은 길거리 및 휴게실 판매 꽈배기 0.3g, 토스트 0.1g, 찹쌀도넛 0.1g, 튀김류 0.2g 등이었으며, 제과점 판매 생크림케이크가 0.5g, 패스추리 1.2g, 슈크림빵 0.3g, 찹쌀도넛 0.1g, 고로케 0.6g 등이었다. 극장 판매용 팝콘의 경우 총 10종 중에서 1종만 3.1g이었고, 나머지는 평균 0.4g으로 비교적 낮았다 /연합뉴스



▲트랜스지방=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 많이 섭취할 경우 체중이 늘어나고,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긴다. 패스트푸드나 마가린, 쇼트닝 등으로 만든 피자·팝콘·빵·파이 등에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오늘은 광주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광역시' 편 녹화가 23일 1천5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녹화에는 예심을 거친 14팀이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현철·현숙·백남봉 등 인기가수와 코미디언이 게스트로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봄 최악 황사

올봄의 황사가 사상 최악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23일 "황사 발원지인 황토 고원과 내몽고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에 가뭄이 지속돼 극도의 고온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황사현상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4월에는 북서풍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기후예측과는 "황사 발원지의 기온과 강수데이터 적설량 등을 예년과 비교한 결과 올해 황사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중국 베이징시 환경보호국도 최근 황사 발원지인 황토고원과 내몽고사막 일대가 올 겨울 고온건조한 날씨를 보여 황사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황사현상은 평년(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황사 발생일수인 3.6일보다 많을 뿐 만 아니라 황사발생일수 10.7일로 큰 피해를 겪었던 지난해 보다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황사가 열흘동안 한반도를 덮친 바 있으며 베이징은 총 17차례의 황사피해를 입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 요구 법정 소동

'인화학교 성폭력' 심리…한때 재판 중단

법정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이 수화 통역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인화학교 성폭력 관련 1차 심리'에서 방청객 중 일부가 통역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수화 통역사는 이날 재판부를 마주보고 서 있어 방청객이 수화를 통역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방청객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청각장애인이 있어서 통역은 검사와 변호사, 재판부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피고인 중 청각장애인이 없다면 수화 통역 요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통역은 방청객보다는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청각장애인들은 "이는 청각장애인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며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농아인협회 조모씨가 강제 퇴정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후 원활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방청객을 위해 통역자를 방청객을 향해 돌려 세운 후 수화 통역을 실시,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인화학교 교직원 6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중 5명에 대해 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운전면허 학과시험 쉬워져

합격률 69%로 증가

지난해 8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가 개편되면서 크게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56만3천414명이 응시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합격률은 69.0%로, 재작년 같은 기간(49.4%)이나 작년 1월 초~7월 말(57.4%)과 비교해 대폭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구조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나 법률 지식 등 지나치게 전문적인 사항의 비중을 줄이고 필수 지식 위주로 문제를 개편했다"며 합격률 상승 원인을 설명했다.

경찰은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